

다. 100% 온라인 강의로 가기보다는 일단, 오프라인 강의를 도와주는 보조 자료로서 활용하는 수준에서 그러한 활동을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능하면 많은 교수들이 빠른 시일 내에 쓸 수 있도록 하는 확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데, 지금 목표는 2년 내에 70~80%의 사용률을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교수님들은 100% 모두 쓰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강의평가에 이 e-TL 활용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지금 e-TL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큰 문제는 대학교육의 주체와 관계자들이 e-Learning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느끼지 못하고, 지금 전세계적으로 전체적인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귀찮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변화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교무처에서는 e-TL을 매우 중요한 역점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TL을 통해서 교육정보화도 더욱 쉽게 이룰 수 있고 대학교육의 질 역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인터뷰 이해정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e-Learning 자원부 선임연구원)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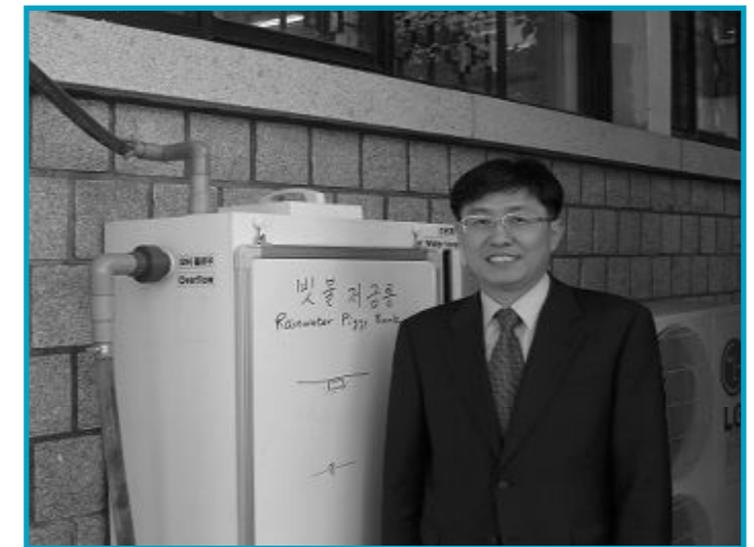
e-Learning 베스트 강좌:

한무영 · 김지현 교수 인터뷰

서울대학교에 새로운 교수학습관리시스템 e-TL을 도입하여 운영해온 지도 반학 가지였다. 이에 e-TL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강의를 선정하여 교수님들의 강의 노하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기회를 가졌다.

‘물의 위기’: 한무영 교수

먼저 서울대가 초교육원의 ‘물의 위기’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의 한무영 교수를 만났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한무영 교수

어떻게 e-TL을 쓰게 되었냐는 질문에 한무영 교수는 강의에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이러한 활용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e-TL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기본치는 사람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생각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수업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한무영 교수는 e-TL의 개발과 동시에 수업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고, 과거에 강의실에서만 수업이 진행되던 때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학생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e-TL에 들어가서 새로운 글이 올라왔나 하고 학생들의 활동을 지켜보는 것이 제겐 아주 취미가 되어 버렸어요. 새벽 1시, 2시에 또 학생들이 글을 쓰면 바로 답변을 달아 주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또 좋겠지만, 제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전공자의 입장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재미있는 질문을 학생들이 하기도 하고, 또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직접적으로 학생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제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답변을 하는가에 따라서 학생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꼭 지켜볼 수 있는데 그게 아주 보람 있고 좋습니다.

또한 한무영 교수는 '물의를 위'라는 강의의 목적과 대상을 고려할 때, e-TL을 활용하는 것이 강의의 진행을 용이하게 하고 강의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환경인 e-TL을 사용하는 데 큰 망설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본 강의의 대상은 전공자가 아니라 앞으로 사회의 각 분야에 있어 리더가 될 서울대 전체 학생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 미래의 환경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출발한

강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물의 위기 중 가장 큰 것은 물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그 책임을 갖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서울대의 구성원부터 솔선해서 고쳐나 가야 합니다. 우리부터 그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되는 지식을 더 많이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학생들에게 모두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학습자료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e-TL을 쓰게 된 것입니다.

'물의를 위'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양의 수업 자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e-TL 시스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강의노트와 미디어 자료실입니다. 한무영 교수는 파워포인트 파일과 문서 파일을 비롯하여 동영상도 꾸준히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치는 입장과 배우는 입장에서 모두 유용하고 편하다고 말했다. 교수 입장에서는 매 강의시간마다 수업 자료를 복사해서 나누어 주어야 할 필요도 없고,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 멀티미디어 장비를 강의실에 따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편하고,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상황과 시간에 그 필요에 따라 학습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니 편한 것이다.

e-TL 사용을 주저하고 있는 교수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렸더니 한무영 교수는 웹(web)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야기로 말을 시작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소비 지라 할 수 있는 학생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단 한번 만들어서 등록해 둔 수업 자료는 모두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언제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므로 처음 시도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일단 만들어 놓기만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업 운영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에서 많은 검토를 거쳐서 도입한 시스템이라면 분명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도입을 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흐름은 파워포인트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에서 새로운 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왜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e-TL이 강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용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왜 도움이 되는 시스템인가를 잘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의 특성과 교수의 강의 방법에 따라 효율이 다르고, 자료 준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강의를 단시간에 e-TL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무영 교수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면 더욱 편리한 e-TL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학기 초나 시험 기간에 특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삶과 교육’: 김지현 교수

핵심교양과목인 ‘삶과 교육’의 e-TL 강의실은 늘 학생들의 시련은 글로 북적북적하다. 수업의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 의견 교환이 사사각각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TL을 통한 활발한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영향 때문인지 ‘삶과 교육’은 2008년도 1학기 학생들의 강의평가에서 전체 핵심교양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기도 했다.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현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e-TL을 처음 사용하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에 김지현 교수는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특히 ‘삶과 교육’은 교수와 학생, 조교(문승)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이라 e-Learning 환경의 학습관리 시스템이 없는 상



서울대학교 교수 김지현

태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도제’(apprenticeship) 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소그룹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수업의 많은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e-TL이 하는 역할은 상당한 것이라고 했다.

학교에 새로운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도입되면 꼭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도입이 되어서 놀랐지만, 이전에 e-Class를 계속해서 써왔기 때문에 e-TL 역시 별 다른 고민 없이 쓰게 되었지요. 무엇보다 ‘삶과 교육’이라는 수업은 높은 수준의 교육적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정규 강의 3시간만으로는 도저히 충분한 교육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유의미한 상호작용의 시간적·공간적 확대라는 측면에서 e-TL은 굉장히 큰 가능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됩니다.

본 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e-IL의 기능은 상호작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부분이다. 학생들이 매시간 읽기 과제를 읽고 질문을 작성하여 올리고 그에 대한 강의전체 구성원들간에 토론과 질문, 대안의 제시 등이 이를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 모두 네 개의 조로 나누어져서 조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조에 학생들의 활동을 돕는 석사·박사과정의 조교가 한명씩 배정되어 있다. 이번 학기에는 특별히 현재 영국에서 유학중인 학생까지 조교로 참여하여, e-IL을 통해 서울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의에 국외의 정박을 넘어서는 교류가 실시간으로 가능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김지현 교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e-IL은 학생들의 개별 학습을 하기 위한 수고를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이 e-IL을 통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강의라면 학생들이 큰 시행착오 없이도 수업의 방향성에 맞는 자료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보다 평가와 성적 측정이 자동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열기 지 이상의 다양하고 복잡한 평가 항목을 가진 본 강의의 경우, 기말에 성적을 처리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각각의 평가 과정을 e-IL에 입력하여 일정한 규칙을 정해 주면 자동으로 성적이 계산되는 시스템은 본 강의뿐 아니라 대형 강의에서도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김지현 교수는 예상했다.

e-IL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김지현 교수는 '좀더 사용자에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강의 중심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e-IL에 접속 후 보이는 화면에서는 그다지 사용자 중심적인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고, 텍스트 중심의 화면 구성 때문에 이미지를 통한 즉각적인 정보 전달의 경우보다 어렵다는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지현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수와 학생이 e-IL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자원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IL을 사용하는 시간이 늦은 밤인 경우도 많은데, 가능하다면 24시

간 내내 지원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필자가 e-IL 사용을 주저하는 교수들에게 조언을 부탁하자, 김지현 교수는 무엇보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궁금없이 가르침에 대하여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어떠한 시스템을 처음 접했을 때, 친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어렵다, 불편하다고만 말하며 기피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자세로 그다지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침에 대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e-IL의 경우도, 저 역시 그것이 교육지원 솔루션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단순히 다른 게시판처럼 최근의 글이 맨 위로 올라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교육적 시각에서 문제 해결의 시계열적 순서를 따라가도록 구성된 체제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지요. 학생들이,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과정, 결과가 순서적으로 나오는 맥락을 무시하고 결과만 보게 되는 건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좋은 교육 방법이나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이상하다, 불편하다고만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강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배움의 기쁨과 제대로 된 학문적 지식을 체득하도록 돕기 위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하여 그 방법들을 알고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 강의의 경우,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그러한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e-IL과 같은 학습관리 체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실 수업에서는 절대로 경험해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을 실천해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교수 역시 색다른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선화(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e-Learning 지원부 연구조교)